

“쓰소리하는 군번영회가 되자”

고성군번영회 월례회 개최 ... 새해부터 보조금 받지 않기로 결의

고성군번영회(회장 이영일)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진리 소재 금성갈비에서 5개읍면 임원진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신년하례식 개최, 시군통합문제 논의, 군 보조금 신청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특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번영회가 군에서 짬뽕 보조금을 받는 것이 번영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사회단체와 달리 번영회는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만큼 새해부터는 군 보조금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 고성군 발전에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고성군이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



고성군번영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월례회의를 하고 있다.

고,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판과 쓴 거둬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소리를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번영회로
원광연 기자

속초소방서 종무식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는 지난해 12월 30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2011년 종무식을 열고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는 소방조직이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이날 종무식에는 전직원 및 3개 지역 의용소방연합회장 등 120명이 참석했으며, 유관단체 및 민간인, 의용소방대원 등 30여명에게 도지사 표창 및 서장 표창을 전수했다.

최민철 속초소방서장은 송년사에서 “2011년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참고 이겨 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새해에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울곡 수색전우회 친목 다져



22사단 수색대대에서 근무한 부사관 출신들의 모임인 수색전우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죽왕면 삼포리 포레스코 대연회장서 김재포 원사 고회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김재포 원사의 건강을 기원하고, 22사단 수색대대전우회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22사단 수색전우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우들이 모여 지난 1996년 7월30일 전우회를 창단했으며, 매년 7월 30일 22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해 선후배간 친목을 다지고 있다.
백옥식 시민기자

거진자율방제대 전국 최우수 평가

해양경찰청 주관 2011 전국 자율방제대 평가 ... 남해방제대 유종태 개인 우수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2011년도 전국 자율방제대 평가에서 속초해경 소속인 거진항 자율방제대가 단체부문 최우수 방제대로, 양양 남해항 자율방제대 유종태(56)씨가 개인부문 우수 방제대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에 따르면 전국 34개소의 민간자율방제대 중 방제횟수, 정화운동, 훈련일수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속초해경 소속 자율방제대가 단체와 개인부분 모두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우수 방제대로 선정된 거진방제대는 지난해 8월과 11월 거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를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대형오염사고를 사전 차단했으며, 지역 합동 방제훈련, 항포구 정화활동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속

초지역에서 민간방제 공조세력으로 톡톡히 자리 매김하고 있다.

우수 방제대원으로 선정된 남해방제대 소속 유종태씨는 지난해 3월 양양군 남해 앞바다 화재 침몰 선박의 기름 유출 사고 때 방제작업을 펼치는 등 방제작업 2회, 항포구 정화운동 16회, 지역 방제합동훈련 1회 등 활발한 방제임무를 수행했다.

속초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최우수 자율방제대 선정으로 자율방제대의 자긍심 고취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며 “2012년에는 더 많은 고민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자율방제대란 경찰서와 거리가 먼 지역에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



속초해경 소속 민간자율방제대의 방제 모습.

면 해양경찰 방제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유출된 기름의 확산방지 등 초동방제조치를 하는 순수 민간방제세력으로, 영북 지역에는 지난 2009년 5월 거진 민간자율방제대가 창단된 이래 현재 3개(거진, 대진, 남해)의 방제대가 활동하고 있다.

원광연 기자

토성면사무소 종무식

토성면사무소(면장 이선국)는 지난해 12월 30일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 토성면부녀회,

토성농협 직원, 면사무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종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도원리 마수일 이장이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장을 받는 등 기념식이 열렸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토성면 부녀회가 준비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라이브 음악공연을 즐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암리 어머니들이 준비한 민요합창과 공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백옥식 시민기자

심미라 최우수 청소년 해양환경도우미 선정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2011년도 올해의 최우수 청소년 해양환경보호 도우미로 경동대학교 IT공학부 4학년 재학생인 심미라(여, 23세)학생을 선정했다.

속초해경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해양오염방제 과장, 경동대 남상복 지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미라 학생에게 표창과 함께 상품권 20만원을 수여했다.

청소년 해양환경보호 도우미란 영북 지역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의 학생자

원봉사자로 해변과 항포구 주변 등에서 방치된 해양폐기물과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올해 최우수 도우미로 선정된 심미라 학생은 올 한해 우수한 자원봉사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난해 9월 ‘국제 연안저오하의 날’ 해변 정화활동에 앞장서는 등 총 11회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한편 청소년 해양환경보호 도우미 봉사제도는 해양경찰이 지난 2003년에



속초해경 김홍희 서장이 심미라학생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있다.

도입·시행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속초지역에서는 700여명의 학생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원광연 기자